

2026년 11월 6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키움증권

AI 투자 기대 조정, 물가와 연준에 주목

다음 주 금융시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미국 물가지표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 지연에 따른 관련 인프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회수 부담이 뉴욕증시 급락과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건설 자체가 광범위하게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전력요금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향후 규제 및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지기까지 관련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 투자 사이클의 종료보다는 데이터센터 건설 및 투자 확대 속도가 조절되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그동안 높아졌던 성장 기대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미국에서는 10 월 CPI 와 PPI 가 발표될 예정이다. 두 지표 모두 전월 대비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낮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 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여건의 추가적인 긴축을 우려해 다소 완화적인 발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발언이 12 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겠으나, 유동성 긴축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11/9~11/13)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11/9	中 10 월 CPI (YoY)	0.8%	0.9%
	中 10 월 PPI (YoY)	5.4%	5.0%
11/10	美 10 월 CPI (MoM)	0.3%	0.6%
	美 10 월 CPI (YoY)	-	3.7%
	美 10 월 근원 CPI (MoM)	0.2%	0.3%
	美 10 월 근원 CPI (YoY)	-	2.6%
11/11	中 10 월 수출 (YoY)	38.0%	36.3%
11/13	美 10 월 기존주택매매 (MoM)	-3.4%	1.5%
	유로존 3 분기 GDP 성장률 (QoQ, 잠정치)	0.4%	0.6%(0.4%)
	美 10 월 PPI (MoM)	0.4%	1.3%
	美 10 월 근원 PPI (MoM)	0.3%	0.7%
연준위원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리치몬드 연은 총재·월러 이사 (11/10), 캔자스시티·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11/11),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11/12), 시카고·샌프란시스코·뉴욕 연은 총재 (11/13)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